

자비나눔을 위한 강남지역불자대법회

## 격 려 사

오늘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자비나눔을 위한 강남지역불자대법회」를 봉행하고,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신 강남지역사암연합회 회장 정우스님과 법문을 해주시는 종범스님, 그리고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을 비롯하여 강남지역의 주지스님과 참석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은사로 대표되는 전통 가람이 소재한 서울의 강남은 근래에 많은 사찰들이 불교 대중화의 바람을 형성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전통과 현대의 불교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강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무역과 금융, 교육의 중심이며, 밖으로는 세계 곳곳의 도시와 연결되고, 세계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발전과 성장의 이면 속에 소외된 민초들의 삶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심 지역이지만, 아쉽게도 불교 인구가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지역 불자들이 모여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세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밖으로는 불교가 이 지역과 사회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으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이 강남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보다 더 널리, 더 깊게 전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에 소재한 사찰은 현대 도심포교당 운동의 1세대이며, 불법을 대중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초석을 일궈 왔습니다. 한국불교가 지난 몇 백년의 모진 세월을 견디고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로 성장·발전하는데 강남지역 사찰들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자부심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실천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곳의 성과는 전국의 여러 사찰에 확산되고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지성이 겸비된 포교방법, 지역의 그늘진 곳과 함께하는 사회 포교가 활발히 펼쳐지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서원과 활동은 전국 곳곳의 사찰에서 하나 둘씩 실현되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이 자리에서 새로운 원을 세우시고 구체적 사업을 수립하여 나가신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여러분들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최근 종단은 수도권 포교를 중무행정의 핵심지표로 삼아 일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사암연합회에 참여하시는 사찰과 종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나간다면 오늘 이 자리가 제2의 강남지역 포교의 출발처로 자리매김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과 수도권 포교에 최일선에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년 5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